

어린이 역사 탐험대 답사 보고서

1 번째로 우리는 나바위 성당에 갔다.
이곳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계
시던 곳이라서 갔다. 나바위 성당은 우
리 성당과는 다르게 가운데에 기둥이 있
었고 스테인글라스도 없었다. 그리고 겉
에 외형도 한옥과 매우 유사했다. 봉헌
금 대신에 봉헌초를 냈다. 이 점도 인상
깊었다.



2번째로 우리는 익산 미륵사지를 갔다.
삼국사기에 미륵사에 719년에 벼락이 쳤
다고 나와있다. 목탑 양식으로 지어진 미
륵사지를 보았는데 보완을 하고 나니 다
시 지은게 티가 많이 나서 난 개인적으로
조금 실망스러웠다.




3번째로는 익산 고도리 석조 여
래입상을 보았다.비가 너무 많이
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내려
서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. 하지만
돌로 만든 두개의 불상이 마주보
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
다.



4번째로는 왕궁리 유적지를 가서 XR과 VR 체험을 했는데 현실과 너무 똑같아서 실감나고 재미 있었다. 덕분에 공부를 더 재미있게 한 것 같았다. 그리고 박물관에서 좀 웃긴 것을 보았는데 옛날에는 볼일을 보고 휴지 대신에 뒤퉼치를 막대기로 했다는 것이었다.







마지막으로 숙소에 들어 갔는데 한옥
느낌이 나서 좋았다. 그리고 저녁을 먹
고 다함께 재밌는 놀이를 해서 좋았다.
이번 익산 여행은 참 유익하고 재밌었
다. 하지만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바람이
강한 날씨 탓으로 익산쌍릉과 백지사터
를 못가서 아쉽다. 다음을 기약해 봐야
겠다.